

수능 강한 재수생 몰려온다... 맞춤 지원으로 수시서 승부

2020학년도 대입

수능 백분위·표준점수하락 등 우려
최저기준 적용 낮은 대학에 몰릴 듯
기준등급 높은 쪽 맞춰 수시 전략을

올해 고3 수험생들의 대입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전망이다. 학생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전체적인 경쟁률은 감소하겠지만, 상대평가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백분위와 표준점수 하락이 우려되는데다, 지난해 불수능 여파로 '수능에 강한' 재수생들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3 학생은 50만9485명으로 전년보다 6만2636명 적다. 대학 모집 정원은 1000명 가량 감소하는데 그쳐 전체적인 대입 경쟁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 기준과 정시모집에 주로 반영되는 수능 성적은 백분위나 표준점수 등 상대평가 성적이 반영돼 중하위권 위주로는 전년도 수능 점수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지난해 고난이도 문항 중심의 변별력이 커 올해 재도전에 나서는 재수

〈수시서 수능 국·수·영·탐 중 2개 영역 등급합 6 이상을 최저기준 적용한 대학〉

대학명	전형명	수능최저기준
가천대	학생부우수자	인문, 자연(일부): 국수영탐(1) 중 2개합 6 자연(공학): 국가영탐(1) 중 2개합 6
가톨릭대	학생부교과	인문, 자연: 국수영탐(1) 중 2개합 6 간호(인문): 국나영사(1) 중 3개합 6 간호(자연): 국가영과(1) 중 3개합 6
경기대	교과성적우수자	인문, 자연: 국수영탐(1) 2개합 7+한6 자연: 국가영탐(1) 중 2개합 7+한6
단국대	학생부교과우수자	인문: 국나영탐(1) 중 2개합 6 자연: 국가영과(1) 중 2개합 6
동덕여대	학생부교과우수자	인문/자연: 국수영탐(2) 중 2개합 7 (영어포함시 2개합 6)
상명대	학생부교과우수자	인문/자연: 국수영탐(1) 중 2개합 7
서경대	교과성적우수자	인문/자연: 국수영탐(1)/ 한 중 2개합 6
서울과기대	학생부교과우수자	인문: 국나영사(2) 중 2개합 6 자연: 국가영과(2) 중 2개합 6
인천대	교과성적우수자	인문, 패션산업, 디자인학부: 국수영탐(1) 중 2개합 6 자연: 국가영과(1) 중 2개합 7 (수가 또는 과탐 반드시 포함)

※자료=진학사, 각 대학

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의 경우 대학별 다른 반영 영역에 따라 맞춤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시모집에서는 특히 내신이나 대학별고사 등의 성적이 우수해도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탈락하므로 수능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대비가 필수다.

예컨대 전반적으로 수능 성적이 낮은

수험생의 경우 대학별 수능 일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 전형을 고려할 수 있다.

가천대 학생부우수자전형 인문계열과 건축, 물리치료, 컴퓨터공학 등 일부 자연계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보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개 영역) 중 2개합 6이내, 자연계열 중 기계공, 바이오나노학, 전기공, 화공생명공학

등 공과대학은 수학 영역 중 가형만 대상으로 2개합 6 이내 기준을 적용한다.

상명대의 경우 지난해 사탐 응시자는 2개합 6이었으나 올해 2개합 7로 완화됐다. 한양대 에리카는 교과전형에서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나형, 영어, 사탐(1과목) 영역 중 2개 합 6이내,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기형, 영어, 과탐(1과목)을 대상으로 하지만, 논술전형에서는 계열별 탐구영역을 지정하지 않는다.

다만 절대평가인 수능 영어의 경우 원점수로 등급을 구분하므로 올해 응시 인원이 감소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어와 탐구 과목에서 응시인원이 많은 생활윤리, 사회문화, 지구과학I, 생명과학I, 중 하나를 선택해 대비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다.

또 수능 영어 영역을 수능최저학력 기준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들도 있다. 영어가 제외되면서 수능최저학력 기준 충족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교과 성적이 낮거나 논술 대비가 부족해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대의 경우 지난해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교과성적우수자전형에서 올해부터 인문계열 국어, 수학, 탐구(상위1과목) 중 2개합 6, 자연계열은 국

어, 수학, 과탐(상위1과목) 중 2개합 7을 적용한다. 국민대와 을지대 자연계열은 수학기형을 지정하지 않아 수학나형으로도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인문계열 모집에서 탐구1과목을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대체 가능한 대학도 있다. 경희대, 이화여대, 인하대는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 시 탐구1과목만 대상으로 하는데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성균관대는 탐구2과목 평균을 적용하는데, 소수점 절사로 탐구1과목 2등급, 다른 1과목 3등급이어도 평균 2등급으로 인정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은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비교적 낮게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자연계열 수험생이 더 많이 줄면서 수학 가형, 과탐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능최저학력 기준 대상 영역의 제한이 많으면서 기준 등급이 높은 쪽에 맞춰 수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경쟁자를 줄여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국민대 "선배가 신입생 기초학력 향상 돕는다"

이공계 '트라이앵글 존' 운영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는 이공계 신입생들의 기초학력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트라이앵글 존'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트라이앵글 존은 이공계 대표적인 기초 과목인 수학·물리·화학 3개 과목이 삼각형을 이루듯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신입생의 전반적인 기초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의 튜터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유는 이공계 신입생들이 이들 기초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 향후 전공과목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에 따라 신입생의 학습을 도와줄 선배 튜터는 3과목으로 나눠 주 3회 학교 도서관 로비에서 일정한 운영시간 동안 상주한다. 신입생이 자유롭게 방문해 질문하고 지도받을 수 있다.

이런 학습 방식은 후배는 물론 선배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튜터로 참여하는 김민석(전자공학부 14) 씨는 "신입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국민대는 이공계 신입생들의 기초학력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트라이앵글 존'을 운영한다. /국민대학교

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간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고 정리하게 된다"며 "도움을 준다는 것에 대한 보람도 있지만, 스스로의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좋다"고 말했다.

튜터로 참여한 학생들은 신입생들이 특히 어려웠던 부분을 정리해 향후 문서화해 공유할 계획이다.

국민대는 올해 2학기부터는 트라이앵글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시간과 공간 제한을 받지 않고 상시로 튜터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서울과기대, 스마트그리드 등에 70억 투입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
에너지·자율주행 등 연구 인력 육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종호)가 올해부터 9년간 정부지원금 등 7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자율주행 전기차 연구에 본격 나선다.

서울과학기술대는 지난 29일 교육부·한국연구재단·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지원하는 '2019년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스마트에너지타운'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대학의 중장기 연구소 육성계획으로 교육부 등은 연구소 육성계획과 지역연구소로의 발전 가능성, 연구인력 우수성 등을 평가해 22개 연구소를 신규 선정했다.

서울과기대 전기정보기술연구소(소장이영일)는 스마트에너지타운을 주체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올해부터 9년간 정부지원금 등 7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자율주행 전기차 연구에 본격 나선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로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됐고, 지원을 통해 전임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채용해 연구를 수행한다.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및 자율주행 전기차에 전문화된 신진 연구인력을 육성하게 된다.

스마트에너지타운 플랫폼이란 교내 건물의 조명, 콘센트, 냉난방 설비 등에 지능형 IoT 센서를 설치해 지능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원격 모니터링·관리하는 마을단위 에너지통합 관리시스템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력소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고 태양광·풍력·전력저장장치·전기자동차를 연계해 전력 피크 감축과 사용량도 줄일 수 있다.

서울과기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9년간 연간 정부지원금 7억7000만원 등 총 70여억 원을 투자해 '클라우드기반 에너지융합형 스마트 에너지타운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또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과도 협력을 강화해 기후위기 대응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서울여대 트리플래닛 대표 초청 창업특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허종호 교수)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시 노원구 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관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적 기업인 트리플래닛 김형수 대표를 초청해 '나무를 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을 주제로 창업CEO 특강을 개최했다.

트리플래닛은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기업으로 현재까지 120만

명의 시민이 참가해 12개국, 170개 숲, 7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김 대표는 "창업은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며 남을 돕는 삶을 통해 궁극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다"면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본인이 사랑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한용수 기자

김광호 케이에이치아이 회장 서강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

서강대학교는 총동문회 제31대 회장으로 김광호(주)케이에이치아이 회장(사진)이 선출됐다고 2일 밝혔다.

총동문회는 지난 달 16일 제59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경영학과 72학번인 김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총동문회 회장 임기는 이달 1일부터 3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개소 40주년' 학술심포지움

'세계평화, 통일-재일코리안' 주제

동국대학교는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소장 김환기)가 오는 7,8일 양일간 교내 법학관 B162호와 다환관 세미나실에서 개소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심포지움 첫째날은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주제로 ▲재일코리안의 철학(오구라 기조 교토대학 교수) ▲신앙심과 환심-재일지구인으로서(이시다 조 왕에제미술관 부관장) 5인의 학자가 특

별발표에 나선다. 둘째 날은 '재일코리안의 정치·경제의 현황과 미래'(1부), '재일코리안문화의 변용과 지식인계층의 역할'(2부), '재일코리안의 예술활동과 문화적 위상'(3부) 등의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김환기 동국대 일본학연구소장은 "개소 40주년을 기념한다는 의미와 함께 정치·경제, 사회·교육, 예술·체육 분야 재일코리안의 역할을 통해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